

# 연금 시장 리뷰

## 경제현안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이슈 : FDI 순유출 급증과 'U턴 특구' 전략

## 퇴직연금

- 동향 : 퇴직연금 설문조사 결과
- 이슈 : 100세 장수를 대비하여 사회진입단계부터 체계적인 노후설계 필요
- 퇴직연금통계 : 2012년 3월말 현재

## 세심록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대내외 경기 후퇴로 불황형 무역흑자 지속

-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12년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하였으나 수출입은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
- 무역수지 흑자: 4월 무역수지는 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수출과 수입이 동반 부진한 불황형 흑자의 모습을 보임
- 수출입 규모: 수출은 선박, 무선통신기기 등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4.7% 감소한 462.6억 달러를 수입도 자본재와 소비재 등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0.2%인 441.1억 달러를 기록
- 최근 유로존 불안 지속과 중국 경제 둔화세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회복이 지연될 수 있음

○ 금융 동향: 유로존 해결 방안에 대한 논쟁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동반 하락

- 유로존 위기 해결 방안으로 인식됐던 강력한 긴축에 반대하는 올랑드의 프랑스 대통령 당선 등으로 유로존의 향방에 대한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은 하락세를 보임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4월 23일 3.47%에서 5월 9일 현재 3.39%로 소폭 하락
- 원/달러 환율은 4월 23일 1,140.5원에서 5월 9일 현재 1,140.0원으로 보합
- 코스피 지수도 프랑스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유로존 리스크 재상승으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 하면서 4월 23일 1,972.6에서 5월 9일 1,950.3으로 22.3p 하락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4월23일	5월9일
실물 지표	GDP성장률(%)	6.2	3.6	4.2	3.4	3.4	3.4	2.8	-
	산업생산(%)	16.2	7.0	10.6	7.2	5.3	5.3	4.0	0.3
	소비자물가(%)	2.9	4.0	4.5	4.2	4.8	4.2	3.0	2.6
	실업률(%)	3.7	3.4	4.2	3.4	3.1	3.0	3.8	3.7
	경상수지(억달러)	282.1	276.5	26.1	54.9	69.0	126.7	26.3	30.4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72	3.62	3.80	3.68	3.60	3.41	3.47	3.47
	원/달러(원)	1,156.0	1,107.9	1,119.8	1,083.2	1,085.1	1,143.9	1,140.5	1,140.5
	코스피지수(P)	2,051.0	1,825.7	2,106.7	2,100.7	1,769.6	1,825.7	1,972.6	1,972.6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 □ 경제 이슈: FDI 순유출 급증과 'U턴 특구' 전략

## - 2000년 이후 제조업 일자리 66만개 기회 손실

**(FDI 순유출 급증)** 2006년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여 2011년 신고기준 445억 달러로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큰 변화가 없어, FDI 순유출도 30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목적별로 보면,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크게 증가했으며, 2007년 이후에는 현지시장진출, 보호무역타개, 저임금 활용, 제3국 진출 등 제조업 공동화와 관련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1980년대까지 미국, 캐나다, 호주 중심이었으나 1990년 이후 중국, 베트남, 홍콩, 브라질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IT, 자동차, 화학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제조업 공동화의 우려를 낳고 있다. 투자자별로는 2006년 이후 해외부동산투자 자유화로 개인의 투자 비중이 크게 늘었다.

**(FDI 순유출 급증의 원인과 문제점)** (원인) 이처럼 해외직접투자와 FDI 순유출이 급증한 것은 국내 단위노동비용이 크게 높아지는 등 사업환경과 비용우위가 나빠지고, 해외의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해외투자 자유화 정책이 2006년 이후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하고 있다.

(문제점) 이처럼 해외직접투자와 FDI 순유출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중이 1990년 1.1%에서 2010년 8.0%로 높아지고 설비투자 중 제조업의 비중이 60.3%까지 낮아지는 등 국내 투자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2000년 이후 12년간 제조업 일자리 약66만개의 기회손실이 발생했으며, 제조업의 취업자 비중은 2000년 20.3%에서 2011년 16.9%로 낮아졌다. 이와 같은 투자부진과 일자리 손실은 제조업의 공동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을 초래해 잠재성장률은 최근 3%대로 내려앉았다.

**(시사점: 사업환경 개선과 'U턴특구' 전략)** 국내 정주여건 등 사업환경의 개선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고, 원산지규정의 강화에 따라 국내로 돌아오려는 U턴 기업을 위한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U턴기업들의 신규 고용창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 확대, 정규직 고용 시 세계 인센티브 확대(중소기업 한정) 등의 U턴기업 지원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외국인투자가 부진한 여섯 개 경제자유구역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유턴특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R&D연구기관의 유치 강화로 국내 고급인력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이들과 연계된 해외기업의 국내 유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중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가공을 인정받도록 하는 등 개성공단을 '유턴 단지'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김동열 수석연구위원(02-2072-6213, dykim@hri.co.kr)

□ 동향: 퇴직연금 설문조사 결과 (4/2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요약)

○ 설문조사 실시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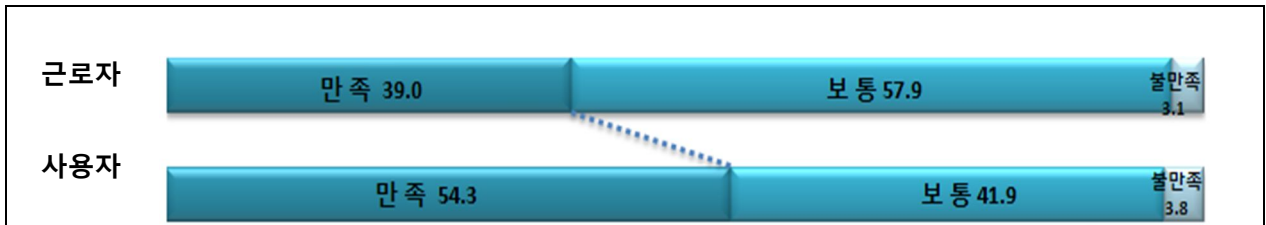
- 금융감독원 및 4개 금융권역 협회(은행연합회, 생·손보험회, 금융투자협회)는 퇴직연금제도 시행('05.12.1) 7년째를 맞이하여 가입자 보호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제도전반에 걸쳐 만족도 등을 조사

설문조사 실시('11.12.28~'12.2.29) 개요

- ▶ 조사대상 :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의 퇴직연금 담당자 및 근로자
- ▶ 표본 수 : 사용자(담당자) 364명, 근로자 1,088명
- ▶ 조사항목 : 제도만족도, 가입현황, 교육, 적립금운용 분야의 총99개 항목

○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①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



- (결과)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근로자 3.1%, 사용자 3.8%)이 매우 낮은 편
- (시사점)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사업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②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

-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유



- (결과) '법인세 절감'(34.3%), '경영자의 의지'(31.3%) 순으로 나타남
- (시사점) 제도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노력과 의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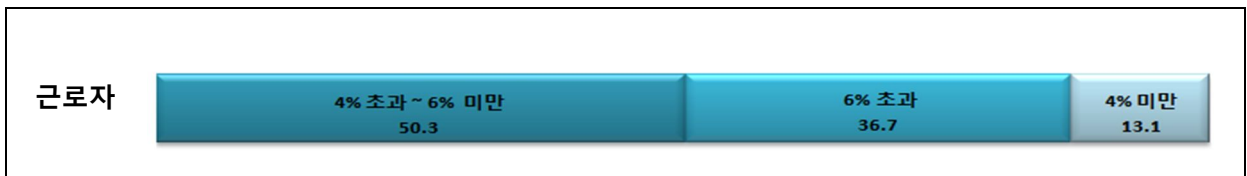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사유



- (결과) '금융회사와의 기존거래'(32%)가 사업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회사의 평판'(29%), '퇴직연금 서비스 능력'(19%) 보다 높게 나타남
- (시사점) 사업자 선정 시 기존 거래관계보다 사업자의 자산운용 전문성, 교육서비스 제공능력 등 본질적인 능력이 우선시되도록 사업자 선정의 독립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

③ DC형 근로자의 자산운용에 대한 인식

- 적립금 운용 시 최저 기대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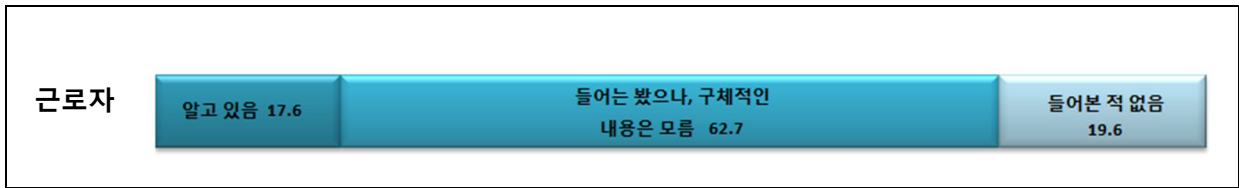
- (결과) 최저 기대수익률은 '4% 초과~ 6% 미만'(50.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 초과'(36.7%) 등 높은 수익률에 대한 응답도 많은 편
- ※ '12.2월 말 전체 적립금의 93.1%가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되었고, 평균 수익률은 4.7% 수준
- (시사점) 가입자의 기대수익률 수준 및 투자 성향을 감안하여 다양한 상품운용 및 적절한 자산 배분 필요

- 적립금 운용 시 불편 사항



- (결과)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부족'(37.0%) 및 '변경절차를 모름'(11.0%) 등 금융상품 및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으로 조사됨
- (시사점) 가입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 및 변경 절차 등 제도 운용에 필요한 교육을 확충할 필요

-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 기능에 대한 인지 정도



- (결과) 대부분의 근로자(82.3%)가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운용 중인 금융상품을 조회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
- (시사점) 가입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적립금 운용을 위해서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및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④ 가입자 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 가입자 교육 실시 현황

- (결과) 가입자 교육을 받지 않은 비율(34.7%)이 높게 나타남
- (시사점) 중소기업장의 근로자일수록 교육을 받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가입자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매년 1회 이상 사용자의 의무사항(DB·DC)이나, 대부분 퇴직연금사업자가 위탁받아 실시

지난 1년간 근로자의 가입자 교육 미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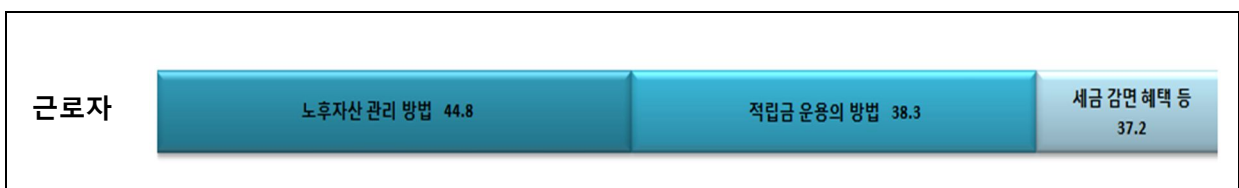
사업장 규모별	10인 미만	10~ 99인	100~ 499인	500인 이상	전체 평균
미참여율	55.5	41.9	29.3	21.1	34.7

- 가입자 교육내용 중 불만사항(중복응답)



- (결과) '퇴직연금 용어의 어려움'(46.8%), '노후관련 컨설팅 미흡'(38.3%), '책자 등 서면교육의 한계'(19.6%) 순으로 나타남

- 가입자가 요청한 교육내용(중복응답)



- (결과) '노후자산 관리방법'(44.8%), '적립금 운용방법'(38.3%), '세금 감면 혜택 등'(37.2%)에 대한 교육수요가 높은 것으로 응답
- (시사점) 가입자의 눈높이에서 쉽고, 실용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 확충 필요

⑤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인식

- 근로자의 노후 소득 중 퇴직연금의 비중



- (결과) 퇴직연금이 노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63.0%)이 가장 많음
  - (시사점) 그간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소진된 경우가 많아 퇴직연금제도가 노후 소득대체 수단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인식
- \* 주요 국가의 사적연금의 평균 노후소득 대체율 44.8% (출처: OECD 보고서)

- 퇴직급여 수령 시, 선호하는 형태



- (결과) 근로자는 퇴직급여 수령시 '일시금(22.9%)'보다 '연금(77.1%)'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 그럼에도 불구하고 '12.2월 중 연금 지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의 경우, 일시금 지급자(12,189명, 98%)가 대부분이고, 연금 지급자(232명, 2%)는 소수에 불과
- (시사점) 가입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 및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 확대 필요

## □ 이슈: 100세 장수를 대비하여 사회진입단계부터 체계적인 노후설계 필요

고령화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반면, 국민 개개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부족한 실정이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화 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40~50대의 노후 준비율은 44% 내외에 불과하며, 노후 준비도 생활자금과 건강관리에 치중하여 은퇴 후 사회참여 및 대인관계 준비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 40.6%, 비경제적 어려움이 59.4%로 노년기의 어려움은 경제적인 면에 국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무와 비재무적 영역의 균형있는 노후준비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재무적 노후준비는 상대적으로 준비에 오랜 기간 소요되므로 사회 진입단계부터 바로 시작하여야 한다. 노후 필요자금은 거주지역, 생활수준, 은퇴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하되, 은퇴 후 30년 이상 노년기를 보내야 하므로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야 한다.

노후에는 소득이 감소하여 지속적인 현금흐름 확보가 중요하므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다층소득보장체계를 활용하여 연금형태의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시기(60세 이후)까지의 소득 크레바스는 개인연금 등을 활용하여 별도로 준비하여야 한다.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준비에 한계가 있는 재무영역에 비하여 비재무적 영역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므로 성공적인 노년기를 위해 은퇴하기 최소 5~10년전부터 적극적인 노후설계가 필요하다

소극적인 대인관계는 노년기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고, 후기 노년기에 갈수록 대인관계가 더욱 축소되어 고독해질 수 있으므로 은퇴 전부터 가족, 친구, 동호회 등 대인관계에 노력하여야 한다. 노년기 여가는 건강증진, 사회적 접촉기회 증가, 일상생활의 만족감 상승, 자립성 향상 등 노년기 삶의 질에 다양한 측면에서 순기능으로 작용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여가활동은 학습과 경험이 중요하므로 은퇴 전부터 지속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직장경력 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나 동호회 등에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건강관리 노후설계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만성질환 관리, 건강한 성생활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상호 상승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정기건강검진 등 건강생활 습관 실천에도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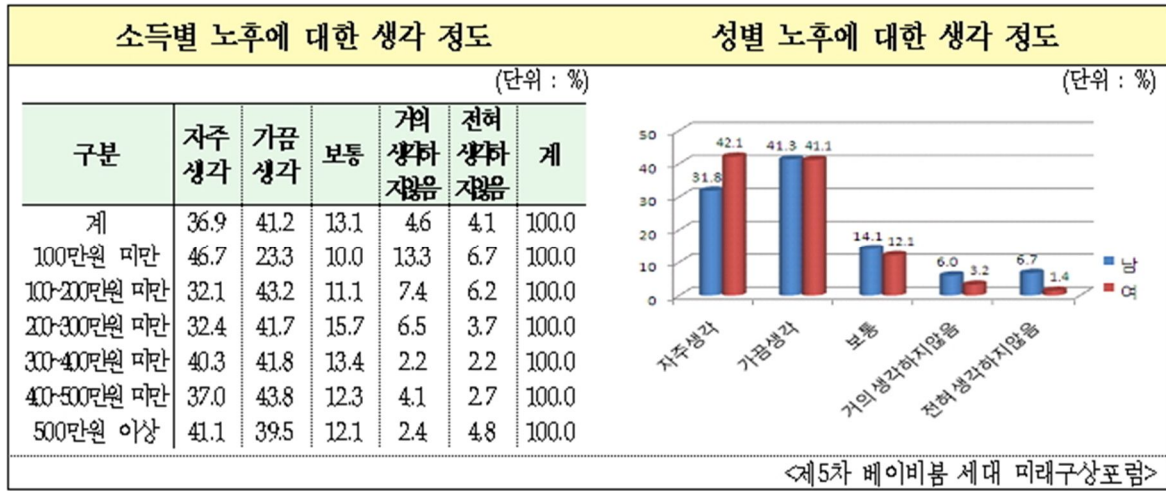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이 일찍부터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통하여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 종합진단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노후설계 상담 및 생애주기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개인별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노후설계서비스를 받는 것도 필요하다.



### I. 우리나라의 노후준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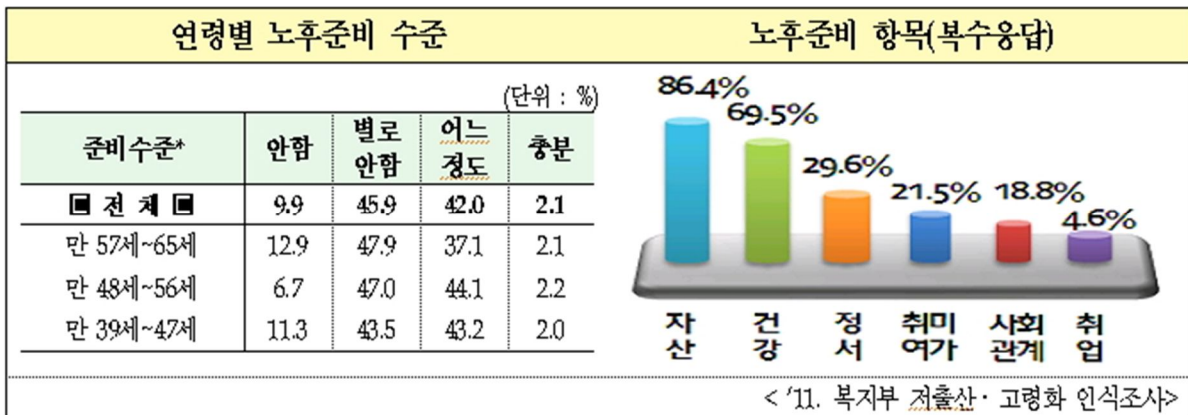
#### ○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 고령화로 인한 장수리스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반면, 국민 개개인이 일찍부터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 및 실천은 아직 부족한 실정
- 베이비 붐 세대의 78.1%는 노후에 대해 자주 또는 가끔 생각하며 노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비율이 8.7%
- 남성에 비해 여성이 노후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빈도가 높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후에 대한 생각빈도가 낮음



#### ○ 40~50 대의 노후 준비율

- 우리나라 40~50 대의 노후 준비율은 약 44% 내외에 불과하며, 노후 준비도 생활자금과 건강관리에 치중하여 은퇴 후 사회참여 및 대인관계 준비는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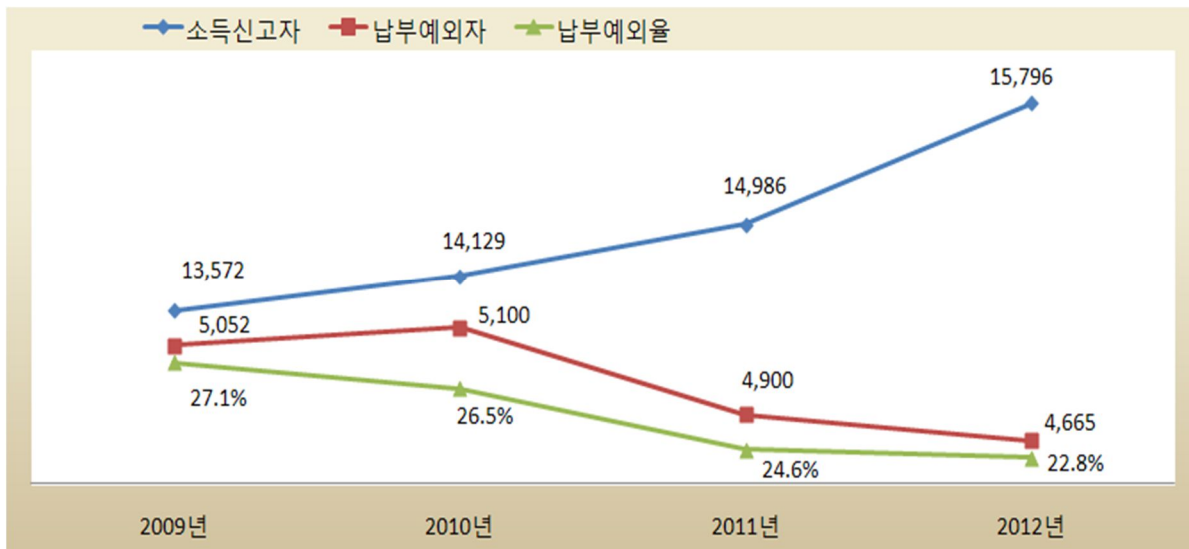


- 한편,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 은퇴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의 장점이 부각되어 최근 2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급증

\* 소득신고자 순증 규모 : 150 천명(08) ⇒ 262 천명(09) ⇒ 558 천명(10) ⇒ 857 천명(11)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변동 추이>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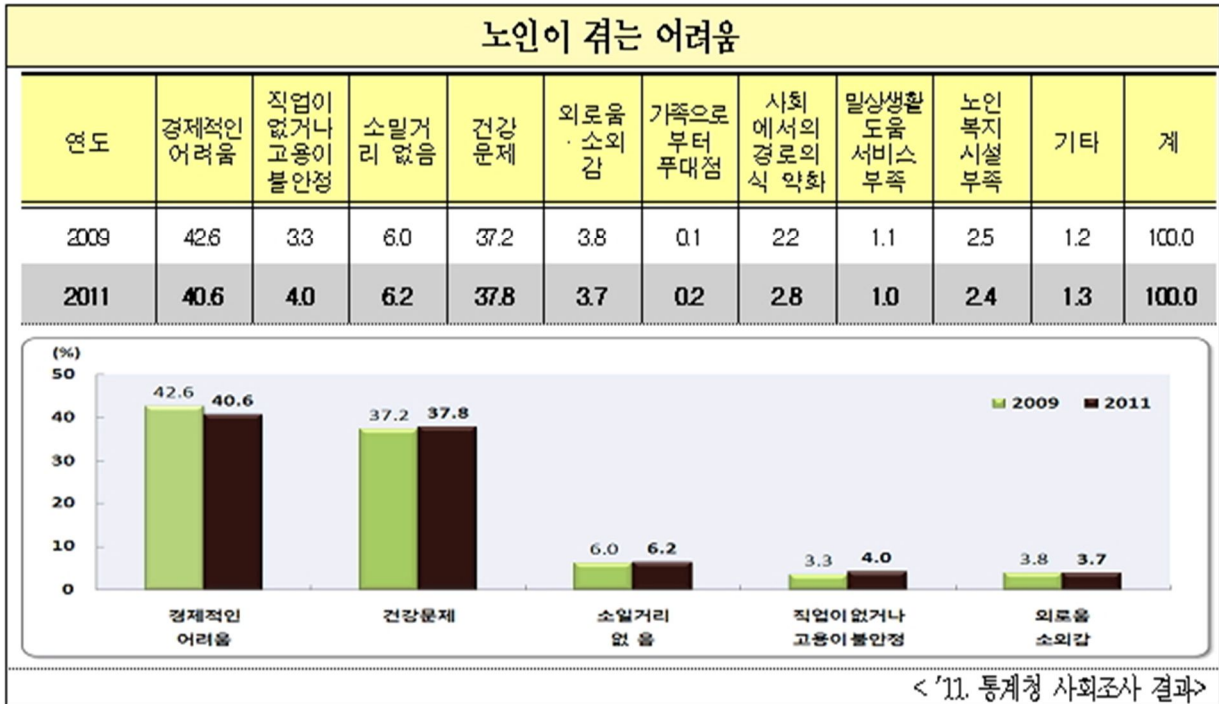


- \* 소득신고자 :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위한 기준소득을 신고한 자
- \* 납부예외자 : 소득활동 중단 등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한 자
- \* 납부예외율 : 납부예외자/(소득신고자+납부예외자)
- \* 2012 년은 추정치

## II.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균형있는 노후설계

- 재무·비재무영역의 균형있는 노후설계

- 노년기의 어려움은 경제적인 면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 외로움 등도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재무와 비재무적 영역의 균형있는 노후준비가 중요
- 노인이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 40.6%, 비경제적 어려움 59.4%



- 재무적 노후준비는 다른 영역에 비하여 준비에 오랜 기간 소요되므로 사회 진입단계부터 바로 시작
-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준비에 한계가 있는 재무영역에 비하여 비재무적 영역은 본인의 노력정도에 따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므로 성공적인 노년기를 위해 은퇴하기 최소 5~10 년전부터 적극적인 준비 필요

○ 재무적 노후설계

- 본인의 거주지역,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노후 필요 자금 책정 필요
- 노후 필요자금은 은퇴기간(은퇴일~사망일), 노후 필요 생활비에 따라 달라지며, 은퇴 후 30 년이상 노년기를 보내야 하므로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고려

\* 적정 노후생활비

구분	부부 기준		개인 기준	
	최소	적정	최소	적정
전체	121만원	174만원	76만원	111만원
서울	150만원	215만원	93만원	140만원
광역시	124만원	177만원	77만원	113만원
도 단위	109만원	158만원	69만원	100만원

<국민연금 연구원 패널조사, 2009년>

- 노후에는 소득이 감소하여 지속적인 현금흐름 확보가 중요하므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소득보장체계를 활용하여 연금형태의 노후자금 준비
- 예상보다 오래살게 되어 발생하는 장수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급기간의 제한없이 평생 지급되고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는 국민연금으로 최대한 노후자금 준비
  - \*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가능
- 소득은 크게 줄지만, 지출은 크게 줄지 않는 퇴직후 국민연금 수령시기(60세 이후)까지의 소득 크레바스는 개인연금 등을 활용하여 별도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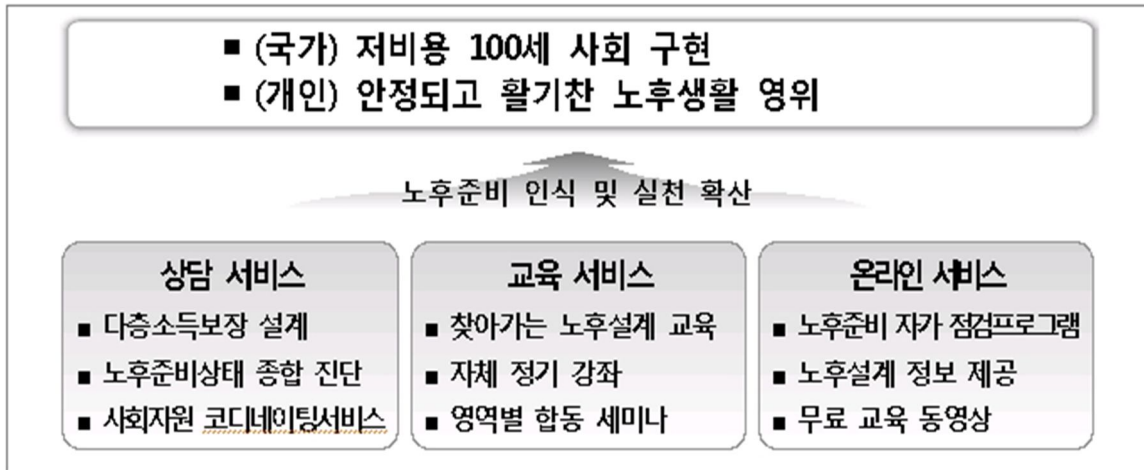


## ○ 비재무적 노후설계

- (사회적 관계) 소극적인 대인관계는 노년기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고, 후기 노년기에 갈수록 대인관계가 더욱 축소될 수 있으므로 은퇴 전부터 대인관계 확대를 위해 노력
  - 배우자, 자녀 등 친족에 몰입할 경우, 친족이 노년기에 접어들어 갑자기 축소될 위험이 있고 지나친 친족 중심은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자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친구, 이웃이나 동호회 참여 등 다양한 대인관계 형성 필요
- (여가활동) 노년기 여가는 건강증진, 사회적 접촉기회 증가, 일상생활의 만족감 상승, 자립성 향상 등 노년기 삶의 질에 다양한 측면에서 순기능으로 작용하므로 매우 중요
  - 여가활동은 학습과 경험이 중요하므로 은퇴 전부터 지속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직장경력 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나 토래모임, 동호회 등에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
- (건강한 생활습관) 바람직한 건강생활 습관이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므로 지속적으로 건강 생활습관 실천 필요
  - 건강관리 노후설계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만성질환 관리, 건강한 성생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상호 상승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정기건강검진 등 건강생활 습관 실천에 노력

Ⅲ.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노후설계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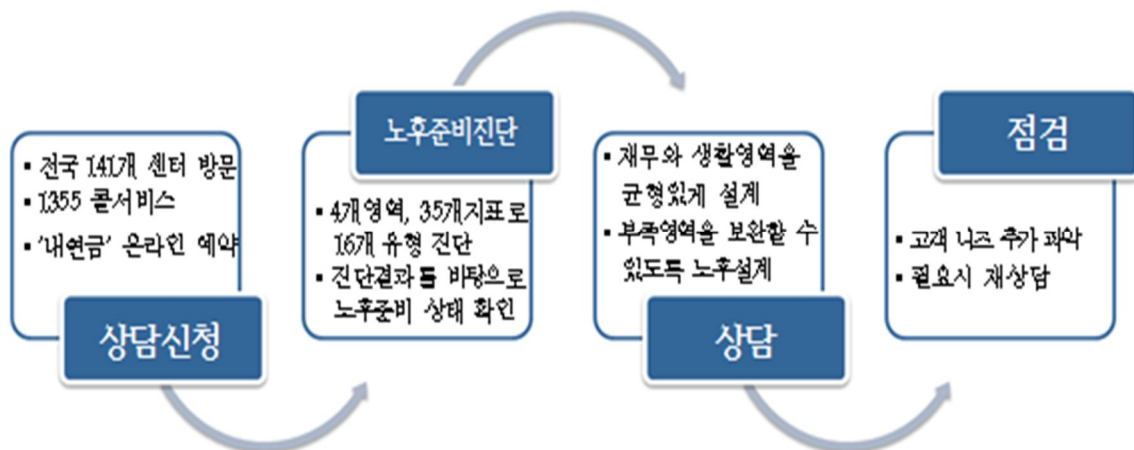
- 국민들이 일찍부터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하여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1 상담 및 교육서비스 제공
- 주요서비스



- (재무설계상담) 객관적·중립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기반의 다층소득보장설계 서비스 제공
- (생활설계상담) 중고령 가입자 및 연금 수급자의 생활지원을 위해 제공
  - 노후준비상태 종합진단을 통해 재무·비재무영역의 균형있는 노후준비 유도
  - 부족영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개인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사회자원을 코디네이팅 해주고, 직접 서비스는 해당 전문기관에서 제공받도록 안내

○ 상담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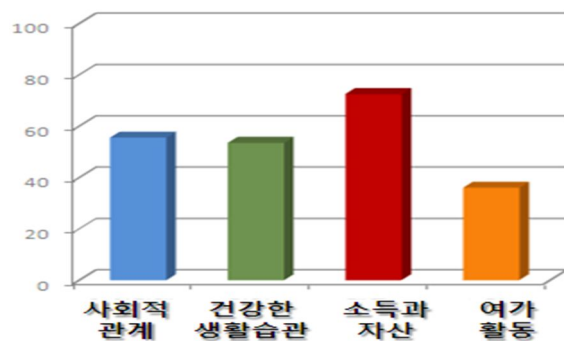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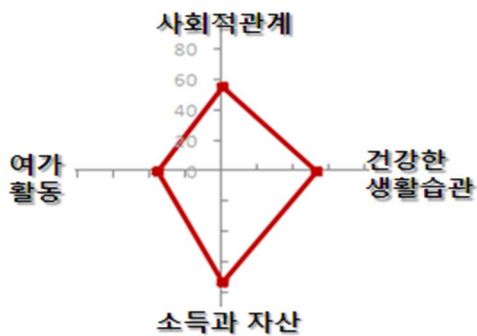
- 재무, 사회적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등 영역별 노후준비상태 통합진단을 통해 개인별로 부족영역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노후준비 진단 결과 예시>

□ 노후준비 진단 결과

	사회적 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소득과 자산	여가 활동
노후준비수준	55.5	53.5	72.4	36.0
노후준비진단	중	하	중	하



□ 노후준비유형

분야	유형설명	유형설명
사회적관계	친족중심형	배우자·자녀·형제자매와의 관계는 활발하지만 친구·이웃과의 관계 및 모임참석 등이 활발하지 못한 유형
건강한 생활습관	건강군 비실천형	건강상태는 양호하지만 건강생활 습관이 다소 실천적이지 못한 유형
소득과 자산	노후준비가 충분한 공적자산형	가장 이상적인 유형으로 노후필요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산 규모를 갖고 있고 공적자산의 비중이 높은 유형
여가 활동	저관여 소극적 여가유형	노후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및 준비에 대한 관여도가 낮고, 현재 여가생활의 일상성과 지속성에서 소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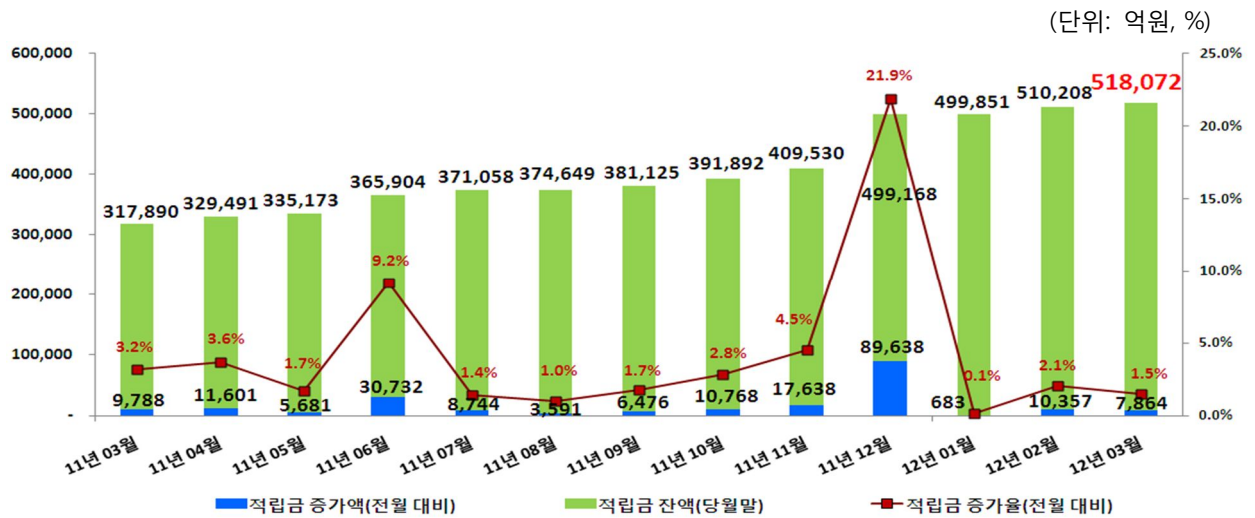
국민연금공단 노후설계기획부 이여규 (02-2240-1214, dreamer@nps.or.kr)

□ 퇴직연금통계 (2012. 3월 현재)

○ 적립금 규모

- 2012년 3월 말 현재 적립금액은 51 조 8,072 억원으로 전월말 (51 조 208 억원) 대비 1.5% (7,864 억원) 증가
- 제도전환분은 전월 대비 2,698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정기납입분이 대폭 증가(9,892억원 ↑) 하여 시장 성장을 견인
- 퇴직금 추계액(133.6 조 추정) 대비 퇴직연금 적립률은 35.7%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



자료: 금융감독원

○ 도입사업장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152,910 개소로 전월말(147,456 개소) 대비 3.7% 증가
- 쉰 사업장(1,507,158개소)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10.1%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구분	사업장 규모						합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이상	
(A)도입 사업장수	89,474	40,102	16,938	4,607	757	1,032	152,910
(B)전체 사업장수	1,277,326	167,033	50,007	10,309	1,363	1,120	1,507,158
도입비율 (A/B, %)	7.0	24.0	33.9	44.7	55.5	92.1	10.1

자료: 금융감독원

□ 洗心錄

□ 언더도그마(Underdogma) 세상: 사촌이 땅 사면 '무조건' 배가 아프다

요정이 농부에게 소원을 물었다. 농부는 대답했다. "이웃집에 젖소 한 마리가 생겼는데 가족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우유를 얻었고 결국 부자가 됐어." 그러자 요정이 "그럼 젖소를 한 마리 구해 줄까? 아니면 두 마리라도?"라고 말했다. 이에 농부는 대답하기를 "아니, 이웃집 소를 죽여주면 좋겠어." 이 러시아의 옛날 이야기는 남이 잘되는 것을 기뻐해주지는 않고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우리는 '단지 젖소가 없다는 이유로' 농부가 당연히 도덕적 우위에 있고, 젖소를 가진 이웃집은 '단지 젖소가 있다는 이유로' 비난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언더도그마(Underdogma)이다.

언더도그마는 약자가 단지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선하고 고결하며, 반면에 강자는 단지 힘이 강하다는 이유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의미한다. 즉 언더도그마는 강자, 약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무관하게 힘의 정도에 따라 반사적으로 도덕적 우위에 두거나 비난하는 것이다. 정치 전략가인 마이클 프렐은 언더도그마의 특성으로 '합리적인 사고는 무시하고 사실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여러 문화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며', '학습할 수 없고 공모나 교류로 확산되지도 않는다'고 꼽는다.

지금도 우리 삶의 곳곳에서 언더도그마가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와 목숨을 구해주는 강자를 경멸하게 되고, 오히려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약자를 옹호하는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주변에 강자이면서도 약자 이미지를 유지하고 다른 강자를 끌어내리려는 언더도그주의자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슈화되는 디지털 사회는 객관적인 시각을 갖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더욱 요청한다.

**“철은 쓰이지 않으면 녹슨다. 고여 있는 물도 그 깨끗함을 잃고, 겨울에는 얼음이 된다. 활동하지 않는 정신력도 마찬가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1452~1519) : 이탈리아 과학자, 미술가



#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명지대 교수(영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